

	보도자료	
2026. 7. 17.(금) 조간[온라인: 7. 16.(목) 12:00]부터 보도 가능합니다.		
담당부서	AI 물리보안진흥팀 최명희 팀장(전화: 02-405-5010, 전자우편: choimh@kisa.or.kr) AI 물리보안진흥팀 이재용 주임(전화: 02-405-5017, 전자우편: jae2dra@kisa.or.kr)	
참고자료	사진 있음 ☒ 사진 없음 ☐	총 2매

건설 현장 특화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으로 안전 지킨다

- 한국인터넷진흥원-한국수자원공사 업무협약 체결...

수자원 · 수도 건설안전 분야 특화 성능시험 · 인증 기반 조성 -

한국인터넷진흥원(KISA, 원장 이상중)은 한국수자원공사(사장 윤석대)와 건설 현장 특화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 기술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유역본부에서 체결했다고 2026. 7. 16.(목) 밝혔다.

건설 현장 특화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은 공사 현장 영상 속 사람의 움직임을 분석해 위험 상황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제 시스템이다.

한국인터넷진흥원은 장비·인력 이동이 많은 건설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 성능시험·인증제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. 이를 통해 댐 · 수도 건설 현장의 안전 사고 예방을 지원할 방침이다.

협약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한국수자원공사 건설 현장의 실제 환경을 반영한 영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, 이를 기준으로 폐쇄회로

텔레비전(CCTV)의 성능을 평가한다. 이 결과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 성능시험·인증제도에 건설안전(수자원·수도) 특화 분야를 신설하는 데 활용된다.

한국수자원공사는 영상데이터 구축에 필요한 환경을 지원하며,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증 제품을 도입해 스마트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.

한국인터넷진흥원 오진영 인공지능(AI)보안산업본부장은 "이번 협약이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"며 "현장 특화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이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개발과 제도적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"고 말했다.